

“수교 60주년, 에너지·방산·인프라·건설 획기적 협력 강화”

尹 대통령-빈 살만 왕세자 회담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 합의
탄소포집기술 개발 등 협력 기대
尹 “양국관계 새로운 단계로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사우디아라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 회담 및 단독 회담, 공식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주 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공식 오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맞이하는 국민이 됐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

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

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했다.

또,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투자·방산협력을 비롯해 문화·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

로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함께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확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졌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도약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올해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에스오일, 9조 '샤힌 프로젝트' 본격 가동

세계 최대 정유·석화 스팀 크래커
연간 최대 320만톤 석화제품 생산
석유화학 매출 비중 16~25% 확대
비정유사업 대규모 투자 행보 이목

에스오일이 9조2580억원(7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에스오일이 정유사업이 아닌 석유화학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에스오일이 해당 프로젝트의 연내 착수를 예고하긴 했지만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오일의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의 정상 간 회담이 있는 날 이뤄졌다.

17일 에스오일은 공시를 통해 샤힌 프로젝트 투자 내용을 밝혔다. 자기자본 대비 132.5% 규모에 해당되며, 자기자본 금액은 6조9880억원이다. '샤힌(Shaheen)'은 아랍어로 '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에스오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스팀 크래커를 구축할 예정이다. 에스오일 측은 “한국과 전 세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석유화학 구성요소 (building block) 공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완공된 4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후속인 샤힌 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320만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는 아랍코의 첨단 'TC2C (원유를 석유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기술을 적용



에스오일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건설업체와 샤힌 프로젝트 EPC 업체 선정 계약 체결식을 갖고 프로젝트 건설을 본격화했다. (왼쪽부터)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 에스오일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 CEO, 현대건설 운영준 대표이사, 현대엔지니어링 흥현성 대표이사. /에스오일

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2023년에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에스오일은 정유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석화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 이번 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탄소중립 기조에 정유업계의 먹거리 찾기가 본격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에스오일 공시를 통해 “저부가가치의 원료를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 당사의 수익성 개선과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당사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스오일은 샤힌 프로젝트 완공 이후 석유화학 비중을 생산물량 기준 현재 12%의 2배 이상인 25%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샤힌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 중 하루 최대 1만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조원 이상의 울산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오일 측은 “석유화학 원료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샤힌 프로젝트의 핵심설비인 '스팀

크래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부생가스 등 다양한 원료를 투입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아울러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소재의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틸렌도 생산하게 된다.

에스오일은 'TC2C'는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 상업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기존 크래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스오일 CEO는 “한-사우디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에스오일의 경험과 임직원의 뛰어난 전문성을 통해 샤힌 프로젝트가 석유화학으로의 우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이재용 등 재계 총수들, 빈 살만과 회동 '네옴시티 논의' 등 대규모 사업 수주 기대

재계 총수들이 '미스터 에브리싱'과 만났다.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최첨단 스마트 시티 '네옴'에 활용할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 재계 총수들을 회동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뿐 아니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회장과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요 그룹 총수 4명만 초청했지만, 이날 네옴시티와 관련해 실제 계약과 MOU를 체결하면서 관련 그룹 총수들도 급하게 추가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총수들도 급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동참했다는 전언이다.

이 회장도 이날 어렵게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재판이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까지 시간을 냈다. 이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9월 출장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충실히 참석해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 만남에서는 빠졌고, 대신 한화그룹 후계구도를 거의 확정된 김동관 부회장이 자리를 채웠다. 당시 빈 살만 왕세자를 단독으로 만났던 정희선 사장도 다시 한 번 만남을 이어가게 됐다.

재계에서는 사우디가 이날 국내 기업들과 수십조 규모 MOU와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네옴시티 조성 관련 추가 협력 가능성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옴시티는 2만6500㎢에 조성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도시로, 길이가 170km에 달하는 건축물과 함께 고속철도와 UAM 등 인프라, 그리고 100% 재생 에너지 발전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IoT 시스템 등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네옴시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최고 수준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통신과 IoT, AI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현대차도 전동화뿐 아니라 수소전기차, UAM까지 전세계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는 손꼽히는 회사다. 그 밖에도 여러 회사들이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등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서도 삼성물산을 비롯해 글로벌 최고층 빌딩 수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재용 기자 juk@